

제4차 규제 · 제도혁신 해커톤

2018. 09.04(화) ~ 09.05(수)

KT 대전인재개발원



감사말씀



한국 일방적 정책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중요

집단의 의견을 공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'개방형 집단이기주의' 중요

- 중국 : 공산당 중심 국가로 강력한 정부정책 및 사후규제 가능
- 한국 : 민주주의 국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불가능하며, 사회적 합의가 중요



VS



사후규제



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식

집중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규제·제도 혁신 해커톤 추진

작은 신뢰의 서클 형성 → 사회적 신뢰를 만들기 위한 토대



- 4~5주에 걸친 철저한 사전 준비과정
- 전체 과정 상호합의 전제

- 1박 2일간, 10~11시간에 걸친 집중토론
- 참여 토론자 평균 20여명
- 전문 퍼실리테이터 중재

- 최종 합의문 작성
- 관련부처 연계 및 모니터링

참고 : 다양한 사회적 합의 도구 : 해커톤 vs 공청회

해커톤

- 의제, 해결방안, 실행계획까지 상호 합의전제
- 발언제한 없음, 전문 퍼실리테이터 중재
- 서로 입장 공감 및 상호합의에 따른 결론 도출



공청회

- 주최측에서 짜여진 틀, 정책방향 제시
- 제한된 발언시간, 각자의 입장 발표
- 기존 입장 및 갈등만 재확인하는 역효과



참고 : 다양한 사회적 합의 도구 : 해커톤 vs 숙의민주주의

해커톤

- 대표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
- 즉각적 공론화가 가능한 시장 반응적 합의툴
- 현장과 연동되어 언제든지 활용 가능



숙의민주주의

-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기반
- 첨예한 사안에 대한 해결안 도출
- 많은 준비 필요(시간, 비용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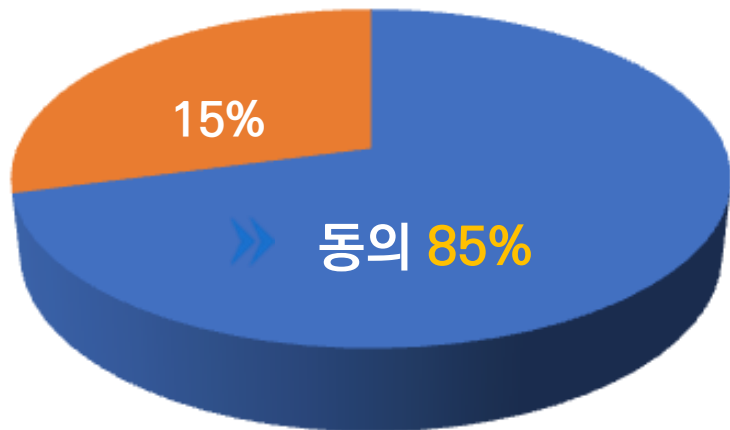
정부 부처 內 전문가 위원회

- 신속하게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가능
- 폐쇄적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측면의 의견 반영 어려움

참고 : 규제 · 제도 혁신 해커톤 설문조사 결과

• 관련 당사자 참여도

의제 관련 당사자들은 거의 모두 참석한 편이다



• 의제 이해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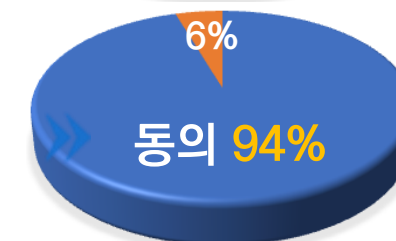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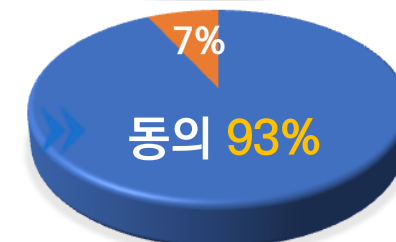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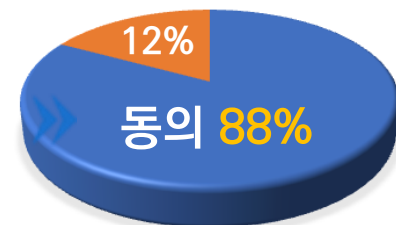
토론자는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었다

• 해커톤 효과성

해커톤은 현장의 고충과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유용하다

• 결과 만족도

정책 책임권자의 피드백과 의사결정은 만족할만했다



정부부처
A 과장

시민단체와 해커톤을 하는 것에 대해
대화가 잘 안될 것이라는 선입견이
있었는데, 실제 해보니 깊이 있는
토론이 가능했고, 오해했던 서로의 입장을
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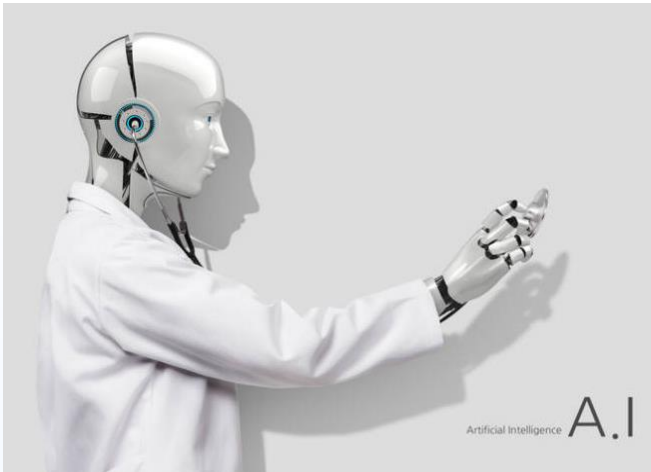
부처가 자기 입장만 제시할 것이라 생각

했는데, 열린 태도로 임해
성숙한 토론과 합의 도출이 가능했고,
그간 몰랐던 정부 입장도
이해하게 되었음

시민단체
B변호사

4차 해커톤 의제

융복합 의료제품



- ✓ 리더: 이진휴 헬스케어 특위위원
- ✓ 의료분야 융복합 제품 인허가 및 유통 규제 관련 이슈 사항

공유숙박



- ✓ 리더: 차두원 KISTEP 연구위원
- ✓ 기존숙박과 공유숙박업간 상생 방안 및 거버넌스 개선방안 등

교통서비스 혁신



- ✓ 리더: 권용주 국민대 교수
- ✓ 승차공유 관련 이슈사항 및 택시 업계와 IT업계 협력 방안

토론의 판을 깔아주는 역할과 합의 결과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행 관리

- 시민단체, 기존기업, 신규 스타트업,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토론을 위한 중재 및 조정자 역할 수행
- 이행 과정 점검 및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
 - ✓ 위치정보(1차 해커톤) : 합의문이 반영된 위치정보법 개정·공표('18.4.17) 및 정부개정안 발의
 - ✓ 개인정보(2,3차 해커톤) :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마련('18.8.31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행사)

혁신성장, 규제·제도혁신을 위한 첫 걸음!
잘 부탁드립니다.

